

매출 둔화 백화점 혼수용품으로 숨통

올 1~3월 모피·가구·아웃도어 의류 효자상품...편집매장도 큰 인기

고물가와 불황여파로 백화점들의 매출이 둔화된 가운데 혼수용품과 아웃도어 의류가 불황을 타지 않는 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여러 브랜드 상품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편집매장은 백화점 의류부문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올 1~3월까지 상품군별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모피(21%), 가구(14%), 수영복(12%), 명품시계(7%) 등 혼수관련 상품 매출이 높았다. 특히 올해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윤달을 피해 결혼시기를 앞당기면서 혼수용품 매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날씨가 풀리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아웃도어 의류 매출도 12% 가량 올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컨슈머 리포트를 통해 코오롱과 블랙야크 등산화가 우수하다는 발표를 한 뒤 두 제품의 매출도 급증했다.

또 신학기 준비 등으로 가방, 신발, 의류 등 아동용품 매출(4%)도 소폭 상승했다.

화장품이나 패션 소품으로 '작은 사치'를 즐기려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면서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액세서리(17%), 하이힐(15%), 립스틱(10%) 등의 매출 상승세가 높았다.

한 매장에서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편집매장은 두자릿수

이상의 매출 상승세를 보이며 백화점 매출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각 브랜드의 인기상품을 모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백화점측 설명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올리브 하스텝' 등 편집매장 매출이 10~15% 가량 늘었으며, 잡화 등 상품부문별로 편집매장 비중을 늘리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지난해 가을 문을 연 편집매장 'LAP'이 여성 의류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20%를 넘어서는 등 고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백화점 매출 효자 상품으로 불황을 모르면 명품의 인기가 한풀

쪼이면서 광주신세계백화점(5%), 롯데백화점 광주점(2%) 모두 전년 도에 비해 성장세가 한 풀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상한과로 불온 신상품이 잘 안 팔리면서 광주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여성류 매출이 전년보다 매출이 6% 하락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올해는 윤달을 피해 결혼을 준비하면서 2~3월에 혼수 관련 상품들이 많이 팔렸다"며 "유행에 민감한 고객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효율성 높은 편집매장 형식으로 매장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토지자본 첫 산업화 기회 날려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15>

전남방직 서울이전 반대운동 ⑧

▲거도적인 분사 이전 반대운동
전남방직의 분사 서울 이전은 어떤 경제적 파장과 광주시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광주상공회의소는 1956년 10월 5일 전라남도도와 도내 80여 주요 기관장들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연명으로 전방 분사와 중앙의 관계요소에 진

이러한 전방의 처사에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전남방직의 산업적 특성이나 지역과 맺어 온 끈끈한 연고 때문이다.

1935년 8월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위해 세워진 이 공장은 전남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저렴한 원편과 우수하고 풍부한 인력, 양

10월 전남방직은 끝내 분사를 서울로 옮겼다.

▲향토산업사의 불행한 분기점
전방의 분사 서울 이전은 어찌보면 사무실 이전이라는 공간적인 변화일뿐일 수도 있다. 경제적인 파장이라는 것도 실은 지엽적인 문제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전방이 광주권 산업사에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며 중대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만일 광복후 미군정이 박두길 공장 자치위원장의 관리권을 그대로 존속시켰더라면 전방은 광주권의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유인하는 구조점이 되었을 것이고, 전방의 귀족재산 불하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자본이 확실한 연고권과 기득권을 인정받아 전방을 토착기업으로 뿌리내리게 했을 것이다.

어찌됐든 전방의 외지인 관리자 지명은 우리 향토산업사의 물꼬를 바꿀수는 불행한 분기점이 아닐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농토인 광주권은 토지자본에 의한 첫 산업화의 기회를 놓쳤고 무엇보다도 귀족재산을 제외한 경제주체의 재편 과정에서조차 제외되고 말았다. 더구나 산업화의 체력이 전무한 농토의 토착자본은 뒤에는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은 자본력의 상실과 나주 호남비료와 아시아자동차 등 지역 산업화의 뼈아픈 실패가 되풀이되면서 더욱 위축됐고, 이로 말미암아 광주권은 결국 70년대의 고도성장 대열에서 소외되고 말았다.

지역민들이 살려 논 공장 하루아침에 등 돌려

전방 서울 이전 향토산업사의 불행한 분기점

정서를 보였다.

진정 내용은 정부의 기구 간소화 정책에 따라 행정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추세이고, 특히 전력 배정이나 자금추천 업무 등의 지방이양이 추진 중에 있어 머지않아 행정의 중앙집권이 완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생산공장을 비롯한 담보물건 등이 이 곳 광주에 소재하고 있어 서울에는 사무소 기능만 뒤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엇 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정부기구 축소나 행정 이양이라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선심성 공약의 구호같은 것이고 전력이나 자금, 원편배정 등의 칼자루를 권 것은 중앙이나 이러한 건의가 전방에 먹힐 리가 없었다.

▲끝내 등 돌린 전방
따라서 분사 서울이전 방침은 날이 갈수록 틀어질 수 없게 되었고, 이 고장 상공인이나 시민들은

질의 공업용수 등 전남의 물적·인적 자원으로 성장한 세계 굴지의 섬유산업체이다.

또 해방 후의 혼란과 무질서에 서도 기술과 경영의 백지상태를 극복하고 단시일 안에 정상가동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고장 근로사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거둔 결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6·25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몰아닥친 시련과 좌절 속에서 잿더미가 되고 고철이 된 공장과 시설을 수작업으로 복구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도 이 고장의 근로사원들이었다.

전남 지역민들은 내 고장의 자원과 인력과 의지와 피와 땀으로 공장을 이만큼 만들어 놓았는데 하루 아침에 야속하게 등을 돌릴 수 있는나는 아쉬움을 씻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로도 전남방직의 분사 서울이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해

이로 말미암아 농토인 광주권은 토지자본에 의한 첫 산업화의 기회를 놓쳤고 무엇보다도 귀족재산을 제외한 경제주체의 재편 과정에서조차 제외되고 말았다. 더구나 산업화의 체력이 전무한 농토의 토착자본은 뒤에는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은 자본력의 상실과 나주 호남비료와 아시아자동차 등 지역 산업화의 뼈아픈 실패가 되풀이되면서 더욱 위축됐고, 이로 말미암아 광주권은 결국 70년대의 고도성장 대열에서 소외되고 말았다.



위중 (인문인)

1000세대 이상 주택 분할 건설 가능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10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주택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해 건설,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위탁관리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주택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러 단지로 쪼개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전체 규모를 1천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역의 건설여건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조례로 1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분할된 단지(공구)는 300세대 이상씩이어야 한다. 단지 사이는 입주민 안전을 위해 폭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기아차 K9 첨단기술·빛 조화 실내 디자인 공개

기아자동차는 지난 9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간 대형세단 K9의 실내 디자인을 11일 공개했다.

기아차의 첫번째 후륜구동 럭셔리 세단인 K9의 실내공간은 웅장한 고급스러움과 첨단 하이테크 이미지의 세련됨이 조화를 이루며 품격 높은 스타일을 완성했다.

센터페시아는 곡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도 단순함을 추구하고, 조각가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아날로그 시계를 중심으로 버튼을 집중 배치했다. 운전자 취향에 따라 세 가지 모드 중 선택할 수 있는 12.3인치 풀컬라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LCD 클러스터)를 적용해 다양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도어트림에 세계 최초 움직이는 조명, K9 로고 조명, 무드조명 등 감성 높은 조명을 적용해 K시리즈에서 강조해온 기아차만의 빛의 철학을 완성했다.

또 K9은 환경인증증을 받은 친환경 내장재를 사용해 고급감을 더했다. /연합뉴스



국화차로 춘곤증 날리세요 1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한차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춘곤증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국화차를 맛보고 있다. 백화점은 봄철 입맛을 되살릴 수 있는 봄나물을 비롯해 건강식품, 아로마 제품 등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대형마트도 심야영업 못한다

SSM 이어 제한...한달 두번 의무휴업 실시

앞으로 광주지역 대형마트들은 심야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오는 22일부터는 한 달에 두번 의무휴업도 실시해야 한다.

지난 10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한달에 의무휴업일을 정해 운영케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광주지역 대형마트 14곳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일부터는 한 달에 두번 의무휴업도 실시해야 한다.

첫 의무휴업일은 22일이다.

지난 2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해야하는 조례를 공포해 SSM 17개소는 지난 3일 0시부터 심야영업을 제한 받았고 둘째주 일요일인 지난 8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했다.

앞으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위반한 업체는 위반시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지역에는 이마트 광주·광산·동광주·상무·봉선점 5곳, 롯데마트 월드컵·상무·점단·수완점 4곳, 홈플러스 계림·동광주·하남점 3곳, 빅마트 진월점과 매곡점(롯데슈퍼로 영업중) 2곳 등 모두 14곳이 적용받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호남최대 원목가구 Sale

쇼핑몰 hong79.com(홍친구 닷컴)

원목식탁 30종류

침실 TV장 20종류

친환경 원목가구 셀러, 인가사, 광주대리점 까사도 한국총판
신혼가구에서 이태리가구 까지 원목가구만 200평 대형매장

상성카드 6개월 무이자 판매

홍스페이스 1899-0240 동구장동 58-15 장동로터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칠만표방수제

무조건적 시공상당 유사물,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